

# 작품 개요

「주기도 1」은 작곡자가 28세 때인 1950년 10월 22일 작곡되었는데, 이 시기는 9·28 수복 후 승승장구하던 아군이 다시 남으로 밀리기 시작한 때였다. 서울에 남아 있던 나운영이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작곡했다고 한 작품이 바로 이 「주기도」이다. 1972년에 「주기도」를 새롭게 다시 작곡하였기에 편의상 이 곡을 「주기도 1」로 표기한다. 이 곡은 1979년 8월 12일 6차 수정을 완료하였는데, 29년에 걸쳐 6차례나 수정할 정도로 정성을 다한 작품이다. 작곡자는 이 곡을 영가풍으로 연주할 것을 원하였다.

The Lord's Prayer  
주 기도

1950. 10. 22

作詞  
나운영 作曲  
編曲

No. 41 major

mp

Voice

Organ

하느님께 신 - 우리 아버지 - 이름은 거룩해하옵서

배 - 나리자임 회중서 배 - 뜻이 하늘에서

이룬 것같이 - 내려서 드 이루어지 - 이 다 오손난

우리에게 - 일용할 양식을 구옵세 - 구 우리 아버지

*mp*, *p*, *mf*, *rit.*, *a tempo*, *a tempo rit.*